사회적기업
매거진

2018 3호
vol.34

36.5

우리 함께 살리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COVER STORY

에코맘의 산골이유식
참, 칭찬해!

순수한 자연의 힘으로
알알이 익어가는 벼는
에코맘의 산골이유식과의
모습과 비슷하다.
정직과 순수한 열정으로
이 땅을, 이 땅 사람들의 건강을
돕겠다는 그들이 있어 듬직하다.

"Nice"

동그랗게 주먹을 쥐어 봅니다. 누군가를 칭찬하고 싶을 때 주저하지 말고
손을 들어 코 가까이 대어보세요. 칭찬은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내가,
질책은 심사숙고 끝에 하는 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 사회적기업 <열린책장>과 함께 배우는 수어교실은 p4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6.5

Always with you 에코맘의 산골이유식

우리 땅의 힘을 살린다

Issue in 사회적경제, 젠트리피케이션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18 ○ **Column** 상상력에 권력을 _문화기획자 이채관

20 ○ **人Taboo** 요즘 그들이 도시를 지키는 방법 _사회적기업 안테나

24 ○ **Zoom in** 성동구청, 상생을 말하다! _지속발전과 김규식 과장

26 ○ **Global report** 다양한 문화의 공생과 당사자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

Vision up 사회적기업의 좋은 친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30 ○ **Cheer up** 눈을 감으면 진하게 피어나는 커피향기 _(주)아로마빌커피

34 ○ **K씨의 하루** 가을, 나를 만나다

38 ○ **Great choice** 사회적기업 제품으로 꾸민 소풍 바구니

42 ○ **News** 2018 소셜벤처 경연대회 시상식 개최 外

46 ○ **36.5 Hot line**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하고 싶은 말

48 ○ **배워봅시다** 수어도 잘하는 당신은 멋쟁이

50 ○ **독자 Box**

발행일 2018년 9월 30일

발행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한화생명빌딩 6~8층

T. 031-697-7700 F. 031-697-7853 H. www.socialenterprise.or.kr

기획·취재·디자인 ㈜워크디자인 T. 02-332-7961~2 **인쇄** ㈜연각P&D T. 02-2285-3388

본지에 게재된 내용의 일부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땅의 힘을 살린다

에코맘의 산골이유식

지리산 맑은 자연을 품은 하동에 젊은 열정이 씨 뿌려졌다. 지역민으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농사를 짓게 하고, 땅이 주는 이로움을 우리 아이들 먹거리에 고스란히 담는 것. 에코맘의 산골 이유식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땅의 소중함을, 건강의 소중함을 새로이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 | 기시윤, 사진 | 박성희/에코맘의 산골이유식

노랗게 익어가는 평사리 들판

굽이치는 섬진강을 벗 삼아 하동 평사리 들판의 벼 알곡들이 노랗게 익어간다. 저 난 여름, 쏟아지는 빗줄기와 뜨거운 뙤약볕을 거름 삼을 수 있었던 것은 농부의 정성 덕분이었다.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은 이 평사리 들판이 더욱 많은 구슬땀으로 윤기 가득하기를 바란다.

우리 땅을 살리는 농부의 구슬땀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의 모든 제품은 하동 땅에서 친환경·유기농으로 생산된 우리 농산물로 만들어진다. 친환경·유기농 농법을 고수하려면 농부의 수고로움은 배가 된다. 하지만 우리 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땅을 밟고 허리를 굽히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하동 농부들의 든든한 지원군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이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하동의 농가는 37곳이며, 품목은 600여 개에 이른다.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의 소득보전 덕분에 농가들은 마음 놓고 농사를 짓는다. 농부들은 하동 땅에 발 딛은 젊은이들이 고마울 따름이다.

땅을 망치지 않는 지속가능한 농사

에코맘의 산골이유식과 계약재배를 하는 농가들은 농약과 화학비료, 검정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토종종자를 우선 심고, 천연 유기제재와 생태퇴비를 스스로 만들어 쓴다. 땅을 살리는 유기순환 농법은 바른 먹거리를 만든다.

위생적인 HACCP 설비라인

좋은 재료가 준비됐다면 이제 위생적으로 조리를 해야 할 차례.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은 HACCP 설비라인을 갖추고 위생적이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한다. 생산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바른 먹거리를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하다.

영유아를 위한 맞춤 이유식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은 대량의 제품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객 주문에 맞춰 한 그릇, 한 그릇 핸드메이드 이유식을 만들고 있다. 지리산 자락의 80여 가지 제철재료로 만들어진 단계별 이유식은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깐깐한 엄마를 사로잡는 이유식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은 당일배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맞춤주문을 당일에 배송하기 때문에 재고가 남지 않으며, 엄마들은 신선하고 안전한 이유식을 아이에게 먹일 수 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니.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에 대한 엄마들의 신뢰는 높을 수밖에 없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은 작은 씨앗에 온갖 정성을 쏟는 농부의 마음을, 아이에게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이 마음들이 우리 땅을 살리는 힘이라 믿는다.

자연 담아, 맑은 정성 담아, 건강한

에코맘의 산골이유식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은 지리산 자락의 농산물을 이용해 영유아 이유식 및 간식을 제조·판매하는 곳이다. 지역 농가와의 상생, 지역 고용창출로 2014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은 정직한 농부의 마음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 왔으며, 또 만들어 갈 것이다. 이는 우리 땅을 살리는 일과 마찬가지이기에 자부심이 크다.

1

죽집에서 발견한 유기농 이유식 시장의 가능성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은 경남 하동군 악양면 산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다. 하동의 너른 들판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이곳, 80여 가지 제철 재료로 단계별 이유식이 만들어진다. 친환경 우렁이 농법으로 재배된 쌀과, 무항생제 한우, 방사 유정란, 남해바다의 달고기 등 건강한 재료를 공수하는 것은 기본. 매일 아침에 수확한 과일, 채소들을 더해 한 그릇의 건강한 이유식을 완성한다.

"이유식은 간을 하지도 않고, 조리가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재료가 중요한데요, 도시에 사는 엄마들이 좋은 재료를 찾아 이유식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죠. 제 고향 하동에서 바로 수확한 제철 재료로 이유식을 만들어 판매한다면, 엄마들의 육아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천호 대표의 생각은 적중했다. 2012년 8명으로 시작한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의 현재 구성원은 35명에 이른다. 설립 5년 만에 연매출 15억 원을 넘었다. 오천호 대표가 이유식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서울에서 운영하던 죽집 덕분이었다. 하동이 고향인 오천호 대표는 죽 재료를 하동에서 가져왔는데, 소금 간 없이 죽을 써달라는 한 손님의 부탁이 의아했다. "죽 재료가 좋다. 아이 이유식으로 먹이고 싶다"는 이야기였다.

1 하동 일대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만들어진 대표 영양 간식들.

2 바른 먹거리를 만드는 데 구성원의 자부심이 높다(우측 오천호 대표).

에코맘 산골이유식

2

지리산 산기슭에서 꽃피운 희망

하지만 죽집 경영은 순탄치 않았다. 사업 실패의 쓴맛을 보고 2012년 고향으로 돌아온 오천호 대표. 그 때 떠오른 것이 2년 전 한 손님의 이유식 이야기였다.

"고향에서 친환경과 유기농으로 농사짓는 분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좋은 재료를 받아서 친환경 이유식을 만들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 아이디어는 바로 실행에 옮겨졌다. 비어 있던 소형 공장 건물을 빌려, 직원들과 함께 이유식을 만들고 포장했다. 아침에는 죽을 만들고, 오후에는 택배를 포장하고, 저녁부터 밤까지는 내일 쓸 재료를 다듬었다. 하루 제대로 쉴 틈조차 없었지만, 오천호 대표를 비롯한 직원들은 사업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찼다.

국제슬로시티연맹이 지정한 슬로시티, 청정한 자연을 품고 있는 악양면 일대 생산 농산물로 만든 이유식을 당일 배송한다는 것. 정직하고 깨끗하게 음식을 만든다면 머지않아 소비자들에게 이 진심이 통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엄마들의 주문은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았다. 단골이 늘고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2014년에는 부설연구소가 설립됐는데, 이곳에서 싹이 튼 현미로 이유식을 제조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싹이 튼 현미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높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이 기술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꿈꾸고 싶기 때문이다.

3 평사리 들판 옆 굽이치는 섬진강, 평사리 211개 농가와 MOU 체결.

구성원에게는 자존감을 지역민에게는 안정적 수익원을

새롭게 짓고 있는 제2공장도 '함께의 꿈'이 담긴 공간이다. 제2공장은 올해 완공 목표를 하고 있으며 991㎡의 부지에 40억 원의 금액이 투자된 곳이다. 이유식 사업을 넘어 다양한 먹거리 사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공장이 증설되면 지역민을 위한 일자리는 물론 더욱 많은 농가들이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지난해 평사리 211개 농가와 MOU를 체결했으며, 농가들은 친환경 농법을 확대하기로 했다.

"평사리 들판은 박경리 선생의 <토지>로도 유명한 곳이죠. 사업을 하며 힘들 때마다 평사리 들판을 보며 다짐을 새롭게 하곤 했습니다. 이곳을 우리나라 최고의 친환경 농촌으로 만드는 게 저의 꿈입니다."

꿈은 한 발짝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공장 증설로써 평사리의 모든 쌀 농가의 수요처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 농업과 소농가들이 살아나야 이 땅이 지속가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오천호 대표의 마음은 구성원들에 고스란히 전달된다. 대부분 하동 농부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의 일원으로서 자존감이 높다.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유통팀 오철훈 사원은 "8개월 딸이 이유식을 아주 잘 먹는다. 아이를 볼 때마다 더욱 정성을 쏟아야겠다고 다짐한다"며 환히 웃는다.

더욱 성장함으로써 하고 싶은 '착한 일'

오천호 대표 또한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농부의 아들이다. 까닭에 농가 어르신을 부모처럼 대하고, 내 아이에게 먹인다는 마음으로 이유식을 만들고 있다.

2013년 4개의 계약 농가가 올해엔 37개까지 늘었으며, 거래 물량도 같은 기간 54톤에서 450톤으로 증가했다. 농가를 찾아다니며 새로운 작물을 발굴하는 것도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의 역할이다. 농부의 아들로서 친환경 농사일의 고단함을 잘 아니, 어르신들에게 살가울 수밖에 없다.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먹는 음식이 이유식이고, 생애 마지막에 먹는 음식도 이유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과 부모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사업에 임하고 있어요."

프리미엄 이유식은 양질의 친환경 농산물뿐 아니라 관리·유통이 중요하다. 도정기 설치 및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설비 라인 구축은 품질관리를 위한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의 노력의 흔적이다.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은 다문화 가정과 취약 계층에 이유식 후원, 장학재단 기탁, 지역 소외계층 쌀 나눔 행사 등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또 지역 어르신들에게 죽을 전달하고 있다.

"회사가 더욱 성장해야, 더욱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다"는 에코맘의 산골이유식.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는 친환경 로컬푸드 회사로서, 소외계층과의 소통도 계속해서 확대해나갈 계획이란다. 에코맘의 산골이유식 구성원들은 농업과 농민의 가치가 좀 더 인정받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굵은 땀방울을 흘린다.

4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휴게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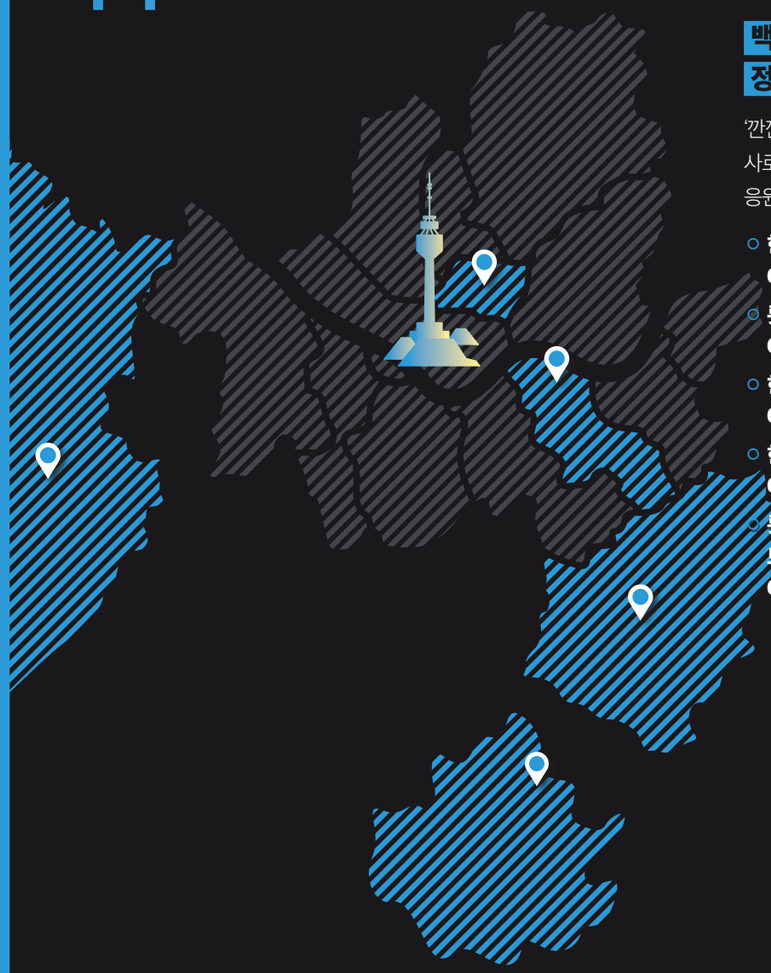
5 에코맘의 산골이유식 전경. 기숙사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6 HACCP 설비 라인은 좋은 재료에 안정성을 더한다.

7 깐깐하게 조리된 이유식은 정기배송, 낱개 배송 등으로 판매된다.

엄마의 마음을 담은 이유식, 아이의 성장도 '쑥쑥'

세상 가장 좋은 것을 아기에게 먹이고 싶은 엄마의 마음처럼,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은 이 땅의 모든 아기들이 건강한 끼니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먹거리가 몸과 마음을 이루는 바탕이 된다는 믿음은 정직의 또 다른 이름이다.



백화점에서도 만나는 정성가득 이유식

'깐깐한' 엄마의 마음도, '깐깐한' 백화점도 사로잡은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의 행보에 응원의 박수를.

- **현대백화점 압구정동 본점 지하층**
  02-3449-5597
- **롯데백화점 소공동 본점 7층**
  02-772-3766
-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1층**
  031-5170-1067
-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송도점 지하1층**
  032-727-2791
- **롯데마트 수원광교점 지하1층**
  토이저러스 매장 내
  031-228-1605

에코맘의 산골이유식 홈페이지

이유식뿐 아니라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의 구매가 가능하다. 이유식을 할 때의 주의사항과 영유아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도 살펴볼 수 있으므로 '초보 엄마'라면 반드시 방문해 볼 것.

- **www.ecomommeal.co.kr**
- **ecomommeal@hanmail.net**

에코맘의 산골이유식 Cafe

유아놀이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부모를 위한 성인 식사 메뉴와 다양한 음료를 판매하고 있다. 이유식을 포함한 모든 음식과 음료들 또한 하동 일대에서 생산된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진다. 수익의 일부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된다.

- **김해점**
  경남 김해시 삼계중앙로 66 301호
  070-8885-2263
- **거제점**
  경남 거제시 상동5길 27 3층
  055-634-2678

에코맘의 산골이유식 산골공방

경남 하동 악양면 지리산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이유식 제조·포장·발송 등이 이뤄진다. 직원들은 지역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원들의 편의 도모를 위한 식당 및 기숙사 시설을 갖추고 있다.

- **경남 하동군 악양면 정서길 199-2**
- **055-884-2625**

남녀노소 모두의 영양 간식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은 이유식뿐 아니라 다양한 먹거리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간식 및 음료 또한 지리산 권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인공 감미료나 향이 첨가되지 않은 게 특징이다.

산골 과일참

영하 40℃ 이하에서 과일을 급속히 동결한 뒤, 저온에서 수분을 날리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과일 맛과 향, 영양을 그대로 보존한다. 사과·배는 생후 6개월 이상의 아이에게, 딸기는 돌이 지난 후 먹일 수 있다. 시리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산골 알밤

국내 특허를 획득한 고압스팀방식의 밤 탈각기를 사용해 겉껍질과 속껍질을 제거했다. 밤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며, 건조 후에도 속 안이 마르지 않고 촉촉하다. 한 입에 쏙 넣으면 밤 특유의 구수함과 달콤함이 입 안 가득 퍼진다.

산골 푸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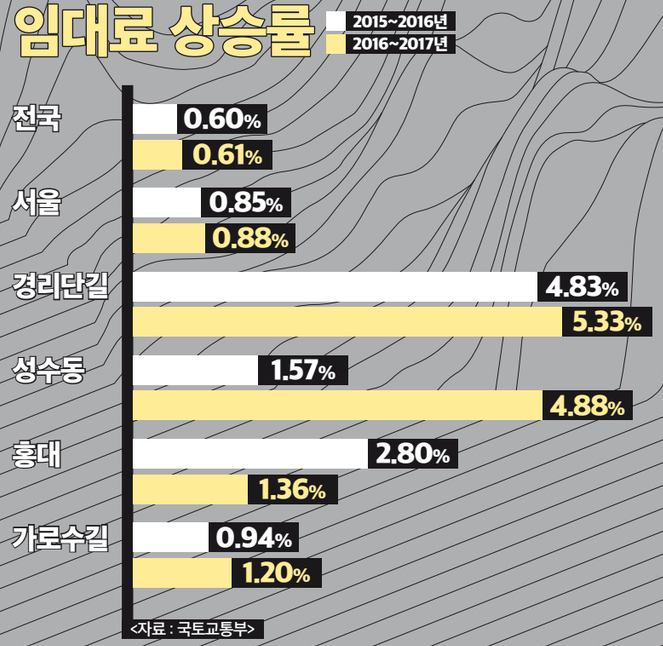
일반적인 푸딩은 맛 증진을 위해 향이 첨가되지만, 산골푸딩은 과즙의 풍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향을 추가하지 않았다. 대신 홍도라지농축액을 첨가했는데, 홍도라지는 하동의 특산물로 기관지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적경제, 젠트리피케이션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됐던 지역이 새롭게 번성하면서 그곳에 있던 기존 원주민들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때문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장벽 앞에 자신들의 꿈을 접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기도 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사회적경제 차원의 지원과 움직임이 절실한 상황이다.

ISSUE Info

젠트리피케이션 상권의 최근 2년간 임대료 상승률



<자료 : 국토교통부>

CHECK Info
총괄대책

거버넌스를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공론화

지역별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상생협약 체결 유도

상가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 및 지원강화

젠트리피케이션 전담 법률지원단 지원

지역정체성 보존을 위한 앵커시설 확보·운영

장기안심상가 운영

장기저리융자 지원을 통한 자산화 전략

<자료 : 서울시>

상상력에 권력을

도시는 시민의 것이라는 당연한 주장은 허망한 깃발이 된 지 오래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상업과 예술 그리고 거주의 권리들이 익명의 자본에 의해 밀려나고 있다. 자본주의의 경제적 논리에 의해 삶의 둥지로부터 밖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우리는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이라 부른다.

글 이채관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문화행정 겸임교수로, 사단법인 와우책문화예술센터와 주식회사 시월드의 대표이기도 하다. 문화기획이라는 큰 화두로 도시재생과 문화예술 영역에서 활동 중이다.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을 기획했으며 다양한 전시·공연·공공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

#1 도시의 개성을 소멸시키는 젠트리피케이션

점령은 축출을 전제로 한다. 각 자의 개성이 빛나는 '다른' 삶의 방식들을 만들고 향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삶의 공간, 정주의 공간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다른' 삶과 놀이 그리고 노동의 방식들은 상상하는 사람들의 시간과 공간을 '자본'의 이름으로 빼앗아 간다. 젠트리피케이션은 기억과 시간으로부터의 축출을 의미한다. 공동체 속에 켜켜이 쌓여있는 기억의 시간들을 한 순간에 빼앗아 간다. 기억이 없는 도시는 그저 소비되는 하나의 상품일 뿐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고단한 노동으로 일구어낸 도시의 상징적-문화적 가치들을 한 순간에 소멸시켜 버리고, 구체적 노동이 만들어 낸 그 '특별함'을 자본화된 '표준화'로 대체한다. 도시를 지탱하는 개별성과 다양성의 문화를 상업화되고 표준화된 그저 그런 문화로 대체한다. 도시의 개성은 사라진다. 내몰림과 빼앗김은 도시 저항을 가져온다. 정주하지 못한 무산자들의 부유하는 노동만이 간신히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 비주류의 대안이 주류의 논리에 매몰된다. '좋은 삶', '다른 삶'에 대한 상상은 불가능으로 다가온다. 우리가 흔히 둥지 내몰림에 대한 도시저항의 양상들을 체감하는 경우는 주로 '물리적 축출'의 과정에서 '물리적 저항'으로 드러나는 직접적인 싸움을 통해서다. 최근 궁중족발 사건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저항의 과정에서 손가락이 절단되고, 모욕을 경험한 사건은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었다. 여론이 환기되고,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축출은 막을 수 없어 보인다. 법은 여전히 '독점적 소유'라는 경제적 논리를 보호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2 사회적경제 영역, 혁신적 모델들 제안해야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혁신적'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함으로써, 도시가 시민의 주권이 실현되는 공간이며 토지는 공유될 수 있는 자산임을 증명해내야 한다. 최근 '자산화' 논의가 활발하다.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민간이 사용권을 획득함으로써 내몰리지 않는 지속적 활동을 보장받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 공동체가 토지와 건물들을 취득하고, 이에 기반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들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다. 토지는 처음부터 공공적이며 공유될 수 있고, 사용될 수 있는 '사회적' 자산을 전제로 한 가능성의 모색으로 보인다. 소유와 공유라는 거대한 담론의 사이에서, 소유와 공유가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의 실험이다. '공유기업'들의 다양한 실험들과 조합주의를 통한 자산의 취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논의는 배타적 독점적 소유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자산 축적 과정에 대한 대안적 모델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재로서 도시와 토지에 대한 소유와 이용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상상하게 한다.

#3 젠트리피케이션을 넘어서기 위한 실천이 필요

도시와 토지는 공공재이다.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지구가 준 선물이다. 이러한 도시와 토지의 공공재적 성격이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식민화된다면, 지속가능한 사회로서의 전환적 삶의 양식이 만들어 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새로운 사례들이 실험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상상은 불가능하다.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삶의 양식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적 원칙과 논리를 위한 긴 싸움이다. 대항의 담론을 만들고 좋은 삶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절실하다. 지금은 '상상력에 권력을' 부여할 때이다.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민들이 도시의 주체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상상력의 힘이 필요하다. 낡은 체계로서의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상상력이 실험되는 사회를 기대한다.

요즘 그들이 도시를 지키는 방법

사회적기업 안테나

서울시 문래동 철공소 골목은 10년 전부터 제조업과 문화가 융합된 문래 예술촌이 생성된 곳이다. 그러나 서울 도심이 팽창하며 2호선과 인접한 높은 접근성으로 이곳 또한 젠트리피케이션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서 청년 도시재생 해커톤 <요즘 것들이 도시를 살리는 법> 진행, 예술인을 위한 공간 아츠스테이 운영 등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활동을 전개 중인 사회적기업 안테나(이하 안테나)를 만나 보았다. 글 | 정보리, 사진 | 박성희

문래예술촌 지킴이, 소통하는 안테나

"사실 한국형 젠트리피케이션이 나쁜 것이고 본래의 젠트리피케이션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도시의 빈 공간을 이종의 문화를 기반으로 한 작가들이 모여 채우면 이상적인 지역으로 변모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점차 문래동이 알려지고 지하철 2호선 등 접근성이 좋다 보니, 상업시설이 점차 밀려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미 한 달에 1~2곳 꼴로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이 오픈하는 상황이니까요."

문래창작촌 내에는 100여 개의 작업실, 250여 명의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불안정한 수입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안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예전에는 문래역 주변 골목에 입주한 작가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점차 문래동이 알려지고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예술인들은 환경이 안 좋은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사실상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고, 생각보다 엄청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에 안테나 나태흠 공동대표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현재로서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사람들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트숍 '헬로우문' 공간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를 기획, 운영하면서, 장기적인 공간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최소 10년 혹은, 수십 년 이상 동안 공간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사업모델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시사회주택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상황입니다."

오직 창작자를 위한 공간, 아츠스테이

안테나의 공간 프로젝트 중 하나가 바로 '아츠스테이'다. 아츠스테이는 청년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위한 물리적, 정서적 기반 부족에 대한 사회 문제 해결의 미션을 가지고 예술가와 창작자가 정주하여 작업에 몰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출발했다. 현재는 사회적 약자, 청년 문화창작자 등 다양한 세대가 모여 살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사회주택을 만들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맞춘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공간이자 진정한 소셜믹스를 실험하는 공간으로 나아가고 있다.

"문래동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점차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는 작가들이 빠지고 상업시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작가들이 상주하던 위치에 아츠스테이를 오픈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아츠스테이 문래 1호점은 지상 3층과 지하 1층에 나눠 위치하는데요. 3층은 15명의 작가가 쓸 수 있는 공동작업실로 운영하고, 지하는 갤러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리모델링이 마무리 중이에요. 더불어 인근에 위치한 문래 2호점은 창작자들이 워크숍과 비즈니스 미팅 등 대인서비스를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디자인 사고를 통한 도시재생을 꿈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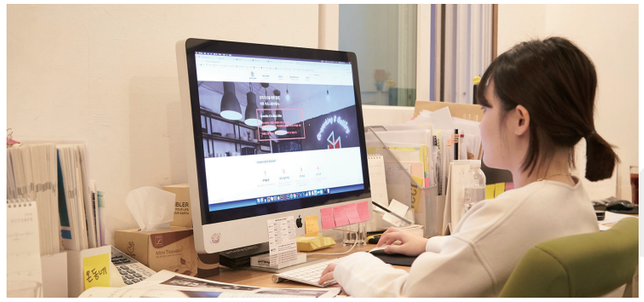
안테나가 지향하는 모토는 '사람중심'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삶을 위해 사람과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초반에도 저희도 사회적기업이나 관련 사업을 잘 몰랐죠. 사회적기업이기 전에 디자인회사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디자인사고'를 기반으로 문화와 지역, 공간을 다루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테나는 서울산업진흥원 서울크리에이티브랩에 꼴라주 협력기관으로 선정되어, '문래창작촌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및 툴킷 개발'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른바 '안테나 역량 강화 툴킷'이다. 이는 디자인사고를 활용한 문제 해결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8단계로 해결 과정을 나눈 툴킷으로,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차후 자생적인 대안을 발견하도록 돕는 교육보조재다.

"예를 들어 인터뷰하는 법을 정식으로 배워본 창작자는 많지 않아요. 직접 인터뷰를 한 뒤, 이를 기반으로 어떻게 지역의 인사이트를 뽑아내고 분석하는지 배워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설계된 질문지 없이 인터뷰를 하면 대부분 난방이나 소음공해, 시설 취약성 등 일반적인 니즈에 대한 이슈만 듣고 오게 돼요. 이를 방지하고, 지역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사이트를 방법이 디자인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안테나는 아츠스테이 등 지역 예술인을 위한 공간 운영 외에도, 디자인사고법을 활용한 예술인 및 문화기획자의 역량강화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민간협력을 기반으로 사회주택 모델을 구축해야

"이미 이곳 또한 토지에 대한 비용이 너무 올라, 콘텐츠를 자산으로 하는 예술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적인 요소가 부족하다고 봐요. 유럽처럼 시가 땅을 소유해서 작가들에게 장기적으로 제공할 방법도 부족하고, 일본처럼 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도 아니죠. 때문에 창작자들이 힘을 모아서 공간을 구입하고자 해도 어려움이 큽니다."

인터뷰 당시 기준 아츠스테이 2호점이 위치한 대로변의 건물 매입가는 약 평당 3,000만 원 내외라고 한다. 20평짜리 대지를 매입하려면 약 6억 원이 필요한 것.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한다 해도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은 예술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유럽처럼 우리도 행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땅을 매입하고, 기존 작가들에게 지속성을 담보로 한 형태로 거주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사회주택 형태의 모델, 도시재생 공간에서의 거점공간 조성 등 민간협력 사업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젠트리피케이션은 거주하는 예술인, 소상공인의 자구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행정제도 개선을 기반으로 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더욱 중요하다. 나태흠 공동대표의 바람대로 행정부의 제도 개선과 민간협력 사업의 활성화로 이 땅에서도 이상적인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해본다.

아츠스테이 코워킹&갤러리

A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428-1(문래동3가, 2F)
T 02-2069-1668
H www.artxstay.com

예술가와 창작가가 정주하여 작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으로, 개인 작업 공간과 세미나룸, 사회주택 등 지점에 따라 다양한 공간으로 복합 운영한다. 문래 1호점, 2호점에 이어 올해 말 신림점과 창신점 오픈을 앞두고 있다.

성동구청, 상생을 말하다!

성동구청 지속발전과 김규식 과장

성동구청은 젠트리피케이션을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곳이다. 전국 최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했으며, 전담 부서를 두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성동구청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 전담 부서인 지속발전과를 찾았다. 글 | 기시윤, 사진 | 박성희

Q 성동구청 지속발전과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낙후된 공장지대인 성수동에 젊은 예술가가 모여들고, 소셜벤처클러스트가 조성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증후가 감지되었습니다. 정원오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2015년 8월 젠트리피케이션 전담 T/F가 구성돼 대응 전략을 세우고 조례 제정에 착수하였습니다. 2016년 1월 1일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이 신설되면서 T/F는 해체되었고, 지속가능도시추진단에 지속발전과, 마을공동체과, 도시재생과가 설치되었습니다. 지속발전과는 지속가능정책팀, 발전구역지원팀, 상호협력팀으로 구성돼 젠트리피케이션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Q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A 정칙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로 2015년 9월 24일 제정되었습니다. 지속발전구역 지정 및 공포에 관한 원칙, 지속가능발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 등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이 신설되었고, 서울숲길·방송대길·상원길 일대가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주민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상권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소는 입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Q 그동안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요?

A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협약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숲길·방송대길·상원길 등 건물주 255명과 임차인 554명을 대상으로 '성수동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상권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물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상가임차인은 쾌적한 영업환경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성동구는 공공기반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 건물주 및 임대인을 설득하기는 어렵지 않았나요?

A 발로 뛰며 건물주를 찾아다녔습니다. 전담 공무원들은 이솝우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인용하며 건물주를 설득하곤 했었습니다. 당장 배를 갈라 공멸할 것인가, 상생을 통해 황금알을 지속적으로 낳게 할 것인가. 종로, 신촌, 이대 등의 상권 붕괴의 예를 더해 건물주를 설득해갔습니다.

Q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은 어떤 효과를 일으키고 있나요?

A 상생협약에 참여한 지속발전구역 임대료 인상률을 모니터링 한 결과, 255개 상가 건물 중 165개 건물의 임대료가 2016년 하반기 18.6%에서 2017년 하반기 4.5%로 큰 폭 하락했습니다. 또 건물주 92명을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 추진에 대한 생각을 물었는데, 86%인 79명의 건물주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사는 활기찬 성동

Q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성동구청이 그동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고 자평합니다. 안심상가 조성도 한 예이고요. 성동구 안심상가는 지난 6월 준공된 곳인데 ㈜부영주택의 공공기여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등에 저렴한 임대료로 점포를 내어준 곳입니다. 성동구청은 그동안의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것이며, 공공기여·기부체납 등을 통해 안심상가를 더욱 늘려갈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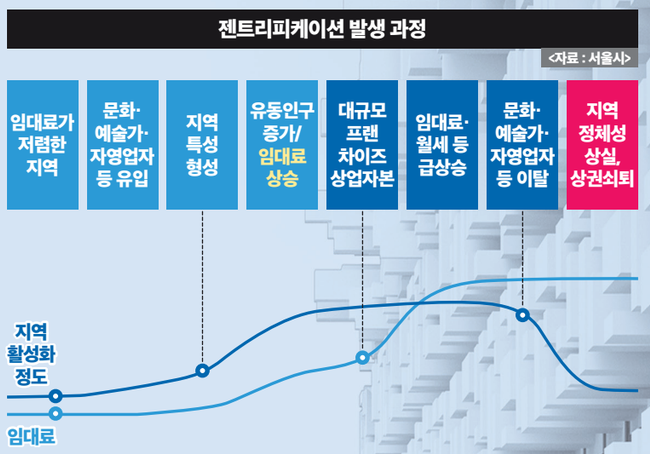
다양한 문화의 공생과 당사자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

젠트리피케이션의 어원은 상류 사회계층인 '젠트리(gentry)'에서 파생된 것으로 특정도시를 고급스럽게 바꾸는 '젠트리파이(gentrify)' 과정에 따라 주거지의 고급화 현상을 의미한다.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인 루스 글래스가 이 용어를 만들면서 널리 쓰이기 시작하였다.
물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의 경우에는 도시화과정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해외사례를 통해 사회적경제 영역이 젠트리피케이션의 해법이 될 수 있음을 환기한다.

글 | 편집실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과정

<자료 : 서울시>



지역공동체의 똘똘 뭉친 힘

런던 시민들은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술로 다 문화를 융합했다. 중산층이 이주하며 땅값과 임대료가 오르는 현상에 맞서 협동조합을 설립해 지역의 땅과 건물을 사들였고 이를 다시 가난한 지역민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주며 스스로를 지켜냈다.
영국 런던 북부 해크니 구에 위치한 쇼디치는 16세기 말에 런던 중심지와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등에 업고 무역업자, 공장주 등 부유층이 거주했던 곳이다. 하지만 17세기에 범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슬럼화가 이뤄졌다. 이로 인해 값싼 임대료를 찾던 젊은 예술가와 디자이너 등이 1980년대 말부터 유입되면서 문화예술지역으로 탈바꿈했다.
하지만 국가 주도의 재생사업 활성화로 임대료가 높아져 월세를 감당할 수 없는 기존 저소득자들이 외부 지역으로 떠나가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했다. 지역공동체인 쇼디치 개발신탁과 해크니 협동조합은 지역 내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환원하는 방식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았다.
쇼디치 개발신탁은 지역민 고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했다. 개발신탁에서 운영하는 식당은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식당 수익금은 쇼디치 지역공동체 사업에 재투자했다. 요리사는 사회적 자립이 필요한 지역 청년들을 뽑았다.
해크니 협동조합은는 지방정부와 기업들의 임대 기부로 마련한 건물과 광장을 재임대해 지역사회 경제에 기여했다. 재임대로 발생하는 수익 전액은 주민 문화사업과 지역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데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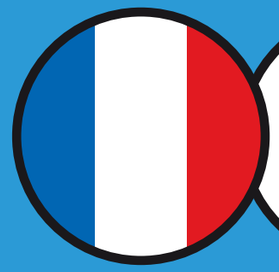
ENGLAND

해크니 협동조합

방치된 건물을 은행 융자를 얻어 매입한 후 리모델링을 거쳐 영세자영업자나 예술가에게 시세의 70%에 임대

쇼디치 개발신탁

식당운영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지원 지역민 고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의 적극적 보호조치

FRANCE

파리시의 보호상업가 정책

▸ **일반적 보호조치 : 소매상업, 수공업**
▸ **총 259.3km**
해당 거리에 직접 접하는 건물 1층에 위치한 상업, 수공업 공간은 다른 용도로 변경 불가

▸ **강화된 보호조치 : 소매상업, 수공업**
▸ **총 259.3km 중 19km**
해당 거리의 각 건물 1층은 모두 상업과 수공업 용도로만 사용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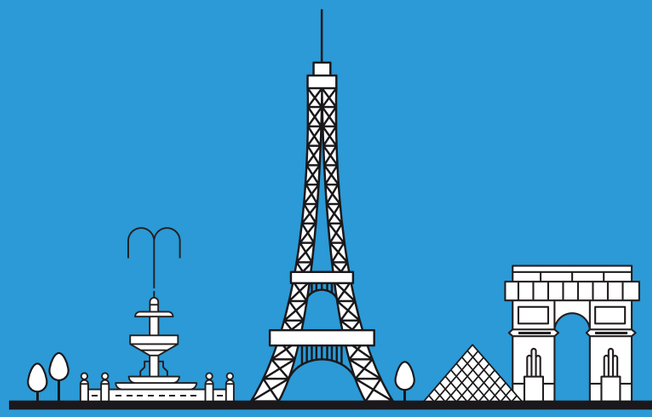
▸ **보호위한 특수조치 : 수공업**
▸ **총 259.3km 중 21.5km**
해당 거리의 수공업 공간들은 다른 용도로 변경이 불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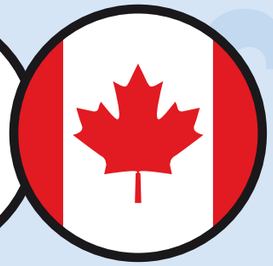
파리시는 1970년대까지 도심 내 대형 상업건물이 입지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도시계획차원에서 대규모 상업기능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대규모 상업시설이 입점한 이후 시민을 위한 소규모 식료품점, 서점, 전통 카페나 식당 등은 현저히 감소하였다.

2006년 파리시는 소매업과 수공업 보호를 위해 도시기본계획인 '파리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보호조치가 필요한 특정 거리를 '보호상업가'로 지정하였다. 보호해야 할 곳을 '일반적 보호조치', '강화된 보호조치', '보호하기 위한 특수조치'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으며, 건물 1층에 입점한 소매상업과 수공업 시설은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없음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보다 실질적이고 체감적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2004년 '비탈 카르티에(Vital Quartier, 생기 있는 거리)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세마에스트(파리동부도시계획합동경제협회)'가 파리시로부터 총 11개의 사업지구에 있는 건물 1층 상점과 토지에 대한 선매권을 받아 진행했다. 세마에스트는 보호 상업가 내에 있거나 팔기 위해 내놓은 상가를 매입하여 소상공인과 수공업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였다.

세마에스트는 매입·수선된 상점뿐 아니라 비탈 카르티에 사업대상지 내 동참하는 상점들에게 무료로 상점 윈도우 디스플레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거리 경관을 향상시키며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예술가 당사자들의 능동적 대응방법

CANADA

ACM
(Ateliers Creatifs Montreal)

총 230개의 작업실과 650명의 예술가를 지원하는 주체로, 몬트리올 시와의 공고한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발전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음.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과 공적 기금을 통해 건물 매입비를 충당

레자르 주택협동조합

멀티미디어 시티에 33개의 주거공간과 17개의 공동공간을 구입한 시각예술가와 미디어 아티스트들의 조합으로 공용 작업실을 제공하고 회원 예술가들의 작품전시회와 교류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서클카레 주택협동조합

멀티미디어 시티에 49개의 주거공용 작업실을 장기계약으로 제공. 2010년 퀘벡주택협회와 퀘벡 재개발 프로그램으로 받은 공적기금으로 2010년 주거 고용 작업실 완공

몬트리올은 1825년 개통한 라신 운하 주변으로 산업이 발달한 곳이었다. 하지만 운하 기능이 약화되면서 1961년부터 1981년 사이, 전체인구 33%가 유출되고 2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겪게 된다.

이후 옛 항구와 연결된 지역으로 예술가들은 창작촌을 형성했고, 몬트리올시와 퀘벡 정부는 멀티미디어 시티를 조성해 도시재생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이는 임대료 상승을 초래했고 예술가들은 주택협동조합을 만들어 젠트리피케이션 조짐에 대응했다. 주거공간과 작업실이 결합한 공간을 만든 것인데, 대표적 협동조합으로 레자르와 서클카레를 들 수 있다.

예술가 집단이 협동조합을 이루어 적합한 공간을 찾아내고, 이후 건물구입과 수리비용에 대한 기금을 공적기구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법이다.

사회적기업도 등장했다. 'ACM'은 2007년 설립된 사회적기업으로 예술가와 장인,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필요한 작업실과 공간을 제공하고 예술가들의 지속적 활동을 지원하는 곳이다. 도시 문화공간을 일반에 알리고, 몬트리올의 예술가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기반하고 있다. ACM은 주거 공간 기능을 제외한 작업 전용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택협동조합보다 공간 구매나 운영이 쉬우며, 더 많은 숫자의 작업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눈을 감으면 진하게 피어나는 커피향기

(주)아로마빌커피

비록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생소한 질병으로 비록 눈앞은 희미해졌지만, 더욱 진해진 커피 향기를 맡으며 미래를 내다보는 사회적기업이 있다. 노환걸 대표가 이끄는 상품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우수사례 (주)아로마빌커피를 소개한다.

글 | 정보리, 사진제공 | (주)아로마빌커피

Handrip
100% ARABICA COFFEE BEANS

누구나 커피전문점을 찾지 않아도 세계 각국의 고급원두커피를 언제 어디에서나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주)아로마빌커피는 지속적인 연구 끝에 편의성과 경제성을 더한 드립커피 제품 '핸드립'을 개발하였다. 제품력으로 인정받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및 노인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기업 경영에 힘쓰고 있다.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해로 987번길 23
Ⓣ 031-8059-8141~2
Ⓗ www.handrip.com

브라보! 사회적기업 (주)아로마빌커피의 성장스토리

Ⓠ (주)아로마빌커피를 어떤 계기로 운영하게 되셨나요.
Ⓐ 중견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40대에 찾아온 병마는 점점 시력을 앗아갔지만, 희망을 놓치지 않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가 예전부터 운영하던 소규모 커피공장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각을 대신하여 후각과 미각이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하루에 40~50잔씩 헛구역질이 날 정도로 커피를 마시며 제품개발에 매진하여 '핸드립'을 개발하는 등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자체 개발한 '핸드립' 제품을 소개해주세요.
Ⓐ 핸드드립 커피는 원두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장점에 반해, 원두 분쇄기와 추출 도구가 필요해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핸드드립 커피의 장점을 살리면서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누구나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면서 '핸드립'이 탄생했습니다. 일회용 드리퍼를 컵에 올린 뒤, 분쇄커피를 넣고 뜨거운 물만 부어주면 언제 어디서나 핸드드립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 (주)아로마빌커피의 기업 강점을 소개해주세요.
Ⓐ 10여 건의 커피 관련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였습니다. 2014년 중소기업청 지정 장애인기업 선정, 2018년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마트, 서울우유협동조합, 웅진식품, 담터, 티젠 등 중대형 유통사에 제품을 납품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아로마빌커피의 상품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연계 생산제품

(주)아로마빌커피가 독자 개발한 '핸드립'은 맛과 편리성, 경제성이라는 3가지 요소를 살린 휴대용 핸드드립 커피 제품이다. 한국인이 선호하는 원두 3종으로 출시,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며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핸드립

<상품 구성>
컵타입 드립퍼, 개별 분쇄 원두 스틱, OUTDOOR EDITION에는 종이컵 추가됨.

- 특허받은 컵 타입 드립퍼로 어느 형태의 컵(8온스 이상 용량)에든 사용 가능.
- 분쇄 원두를 개별 스틱 형태로 질소 충전 포장하여 원두의 맛과 향을 장기간 보존하고 변질의 우려를 없앰.
- 공정무역을 통해 수입한 고급 원두를 직접 로스팅하여 제조.
- 가정과 사무실에서 즐길 수 있는 INDOOR EDITION과 캠핑, 낚시 등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OUTDOOR EDITION으로 사용 출시.

에티오피아 남단 예가체프 지역 고지대에서 생산되는 커피로, 세련된 맛과 향으로 '커피의 귀부인'이라는 별칭으로 유명함. 짙은 꽃향기를 닮은 풍부한 아로마, 시트러스계열의 산미, 가볍지만 부드러운 바디감으로 여성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독특한 커피.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G2

케냐 오타야 AA

'Taste of kenya 2010~2011'을 수상한 커피로 과일의 농익은 달콤함과 향긋한 아로마가 특징이며, 풍부한 감칠맛과 달달하면서도 쌉싸름한 초콜릿의 뉘앙스가 느껴지는 고품질 스페셜티 커피.

콜롬비아 칼다스 수프리모

너트류의 고소함, 초콜릿의 쌉싸름한 단맛, 과일의 상큼한 신맛이 서로 부드럽게 어우러져 깊은 향미와 깔끔함을 느낄 수 있는 커피. '마일드 커피'의 대명사로 명성이 높은 고급 원두.

핸드립 사용 방법

① **커피담기** 드리퍼를 컵에 올리고, 커피를 담아주세요.
② **원두 적시기** 원두가 충분히 적셔질 만큼 물을 붓고 20초만 기다리세요.
③ **커피 내리기** 물 150ml를 2~3회 나누어 부어주세요.
④ **드리퍼 제거하기** 드리퍼를 제거하고 맛있는 커피를 즐기세요.

Interview
(주)아로마빌커피 노환걸 대표

Q (주)아로마빌커피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궁금합니다.
A 동정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는 당당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각장애인 중에 안정된 일자리를 갖지 못해 힘들어하는 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들이 마음 붙이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 또한, 시력을 잃게 된 것을 원망한 적도 많고, 여전히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일터를 만드는 게 (주)아로마빌커피와 제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Q 지원사업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요?
A 패키지를 리뉴얼하며 디자인을 변경한 것이 큽니다. 예전 패키지에는 제품에 대해 담고 싶은 내용이 많아 다소 산만했는데요. 제품의 특장점을 좀 더 직관적이고 차별성 있게 알리는 방향으로 리뉴얼하자고 컨설팅 해주셔서 이를 반영하여 새로 패키지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Q 앞으로의 비전을 들려주세요.
A 2025년을 목표로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1,000명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을 꾸려나가고 싶습니다. 일자리를 함께 만들고 널리 나누는 당당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지원사업 담당자가 말하는 (주)아로마빌커피

관로지원팀 윤성식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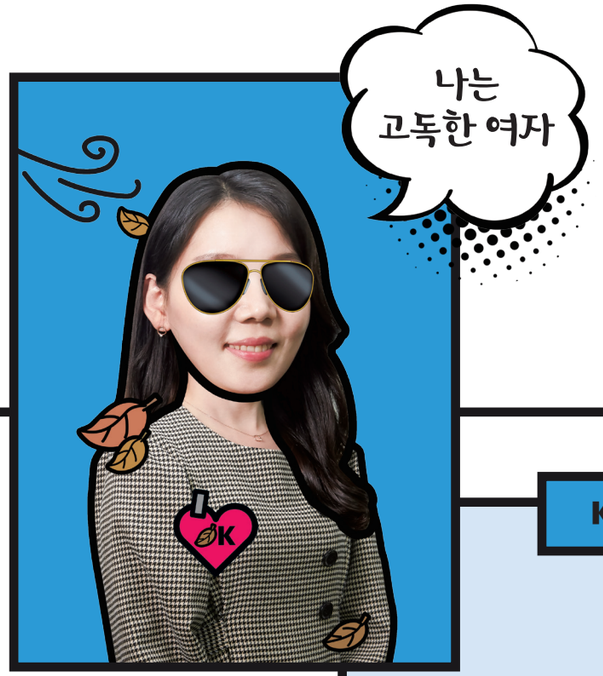
MD의 관점에서 상품을 봤을 때 상당히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상품을 통해 기업의 역량과 우수성을 판단,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서는 흔치 않게 자체 공장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올해 5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셨는데요, 기업 고용 인원의 50% 정도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늘 지금처럼 우수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며 대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아로마빌커피가 받은 상품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서비스

제품 가시성과 직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디자인 변경 — **핸드립 제품 패키지 리뉴얼** — 경쟁 제품과 차별화를 꾀하기 위한 패키지 리뉴얼

가을, 나를 만나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면 트렌치코트의 옷깃을 여미고 거리로 나선다. 가을이 오면 어김없이 흘러내리는 '콧물'과 '기침'은 이 계절을 만끽하는 데 큰 장애는 아니다. 서늘한 공기 덕분에 불같았던 마음이 차분해지는 이 계절,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가을 벤치에 앉아 지난 기억들 속 나를 꺼내어본다. 글 | 기시윤, 사진 | 박성희



K씨의 프로필

나이 31세
좋아하는 계절 가을(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구르는 낙엽만 봐도 눈물이 '또르르'. 나이가 들수록 추억 또한 깊어져서일까? 감수성 촉촉해지는 이 계절이 좋다.)
취미 사색 및 독서
좋아하는 글귀 '불행한 사람은 갖지 못한 것을 사모하고, 행복한 사람은 갖고 있는 것을 사랑한다' - 하워드 가드너
장래희망 연애

가격 10,000원 (마스크)

구입 자체 홈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여성에게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제조 ·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은 모두 수작업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가방, 파우치, 의류 액세서리 등을 취급한다.

T 070-8807-8216 H www.beautree.kr

체험 전

찬바람을 쐬면 기침이 나오는 편이다. 특히 계절이 변하는 요즈음 같은 때 기침이 심했고, 어쩔 때는 콧물이 흐리기도 했다. 머플러로 목과 입을 감싸면 괜찮은데, 초가을 같은 경우에는 답답한 느낌이 들어 머플러를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다.

체험 후

아마 일반적인 하얀 마스크라면 착용을 안 했을 것이다. 가을을 담은 듯한 고급스러운 색깔과 자수가 마음에 쏙 들었다. 또 도톰한 재질과 마스크 입체 패턴은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마스크를 쓰고 오랜 시간 산책을 할 수 있었다.

가격 10,000원
(국화차 12g)

구입 스토어 36.5 은평점
(녹번역 4번 출구)

천지원

2004년 경남 의령에 수국차 농장을 조성하며 사업을 시작했으며, 2006년부터는 '민들레 영토'에 '민토차'를 개발해 공급했다. 청정지역에서 무농약 무제초 제로 직접 식물을 재배하여 차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T 02-376-9657 H www.dewtea.com

체험 전

평소 인테리어가 잘 된 카페에서의 사색을 즐기곤 했다. 하루 1~2번 10,000원을 훌쩍 넘겨 커피를 마시는 데 돈을 쓰는 경우가 부지기수. 이제, 좀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몸에 좋은 차와 함께 말이다.

체험 후

하루 1잔 이상 커피를 마신 날은 어김없이 불면증이 찾아왔다. 커피 대용품을 찾았는데, 감기예방, 항암효과가 뛰어난 국화차가 좋겠다 싶었다. 곱게 우려낸 찻물을 텀블러에 담아 외출한다면 그 어디서나 좋은 카페가 될 터이다.

가격 10,000원
(디퓨저 40ml)

구입 스토어 36.5 은평점
(녹번역 4번 출구)

한국아트공예협동조합

'다 같이 이루고 누리다'라는 슬로건 아래 공예인들의 판로 개척과 교육, 재능기부에 앞장서고 있다. 전통 수공예품, 기업의 기념품이나 답례품, 액세서리, 인테리어 소품 등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을 공예인들이 직접 만들고 있다.

T 02-357-7378 H www.kartc.co.kr

체험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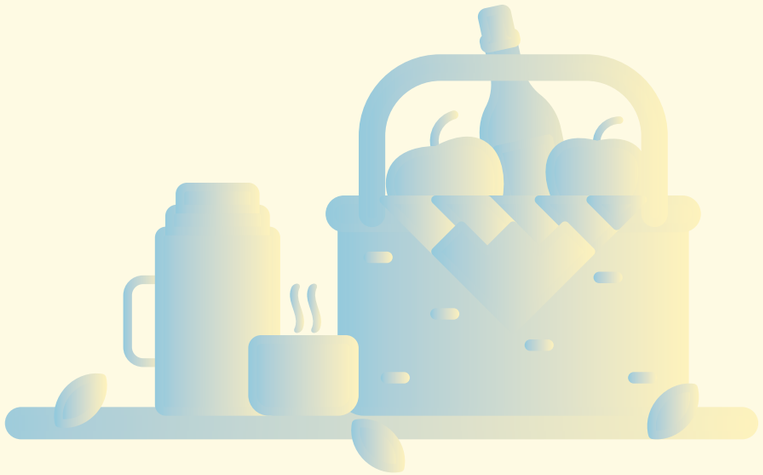
방향제로 캔들은 사용했지만 디퓨저는 사용하지 않았다. 인공 액체가 인체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선입견 때문이었다. 하지만 KCL인증 제품은 안전하다는 것! 스토어 36.5에서 KCL인증 디퓨저가 눈에 띄었다. 투명한 디퓨저 속 파란 돌이 귀여웠다.

체험 후

시트러스트 계열 향이 싱그러웠다. 향기와 함께 지난 여름의 뜨거운 나날들이 떠올랐다. 그 때는 더위가 가시기만을 바랐는데, 막상 지나가니 아쉬움이 크다. 지금 이 가을도 어느 날 또 다른 추억으로 남을 테지…. 오늘 오롯이 나 혼자만의 시간을 곱게 저장해본다.

한아름 안고 떠나요
착한 가을 소풍
사회적기업 제품으로 꾸린 소풍 바구니

진득했던 더위를 씻어내는 가을바람이 불어오면, 커다란 돗자리와 맛있는 간식을 챙겨 들고 나들이를 떠나고 싶어진다. 자연에는 먹거리가 사람에게는 설렘이 영그는 계절.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함께라면 가을 소풍이 더욱 풍성해진다. 글 | 정보리, 사진 | 박성희



착한 소풍 준비물을 찾아서

소풍엔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까. 돗자리, 도시락, 간식, 그리고 추억을 함께할 사람들. 여기에 '사회적가치'를 살짝 더하는 것은 어떨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매우 다양하고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타이틀보다 제품군 내 '브랜드 파워 1위'로 더욱 유명한 아기물티슈와 요즘 주목받는 원물 간식, 자연 그대로 생분해되는 일회용 그릇 등 하나하나 찾아보고 구입하기 어렵다면 사회적기업 제품 전문 쇼핑몰을 이용해보는 것도 좋다. 바로 '별별마켓(http://socialecho.kr)'이다. '소비에 가치를 더하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이 사이트는 여러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상품을 묶음 배송으로 판매한다.

테이블보 겸 돗자리
목화송이협동조합

○ cottonball.kr
○ 070-7124-9351

소풍하면 빠뜨릴 수 없는 필수품, 바로 돗자리다. 목화송이협동조합의 돗자리는 테이블보 겸용 제품으로 두껍고 튼튼한 방수 원단을 이용해 150×110cm의 넉넉한 크기로 제작되었다. 착착 접어 넣으면 A4용지 크기의 전용 손가방에 쏙 들어간다. 이 외에도 면 생리대, 장바구니, 면 행주, 컵 주머니 등 환경을 생각한 바느질제품을 제작, 판매하며 모두가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오븐에 갓 구워 바삭한 크래커
더테스트키친

○ thetestkitchen.co.kr
○ 042-825-3600

더테스트키친의 크래커에는 달걀과 유제품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 채식주의자, 그리고 담백한 크래커를 찾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인 간식이다. 또한, 합성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아 기존 크래커보다 모양이 납작하며 식감이 바삭하고, 합성조미료를 넣지 않아 원재료 그대로의 맛과 향이 살아 있다. 자색고구마, 대추, 유자 등 입맛에 맞춰 크래커를 선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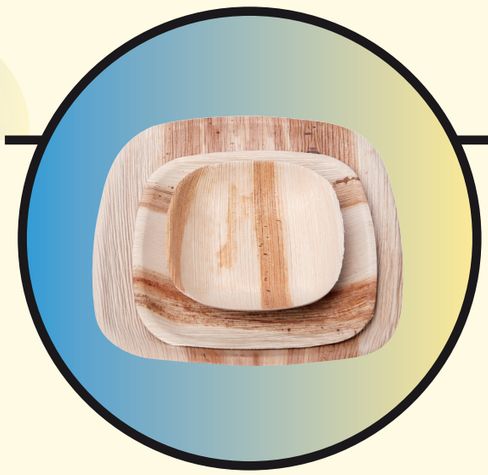
네이처골드 엠보싱 물티슈
베베숲

○ www.bebesup.co.kr
○ 080-553-7015

'화장품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한 베베숲 네이처 골드 엠보싱 물티슈는 시험결과 물보다 자극이 적어 아기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다. 자연유래 셀룰로오스를 정제한 레이온 원단을 활용하여 수분함량을 높였다. 1995년부터 아기피부연구소를 통해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제품을 생산해 온 베베숲은, 이른둥이 후원, 미아방지, 수족구병 예방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며 사회적기업으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낙엽으로 만든 친환경 일회용 용기
나무리프

○ namuleaf.modoo.at
○ 070-7014-0510



나무리프의 일회용 용기는 청정한 캄보디아 지역의 낙엽을 수거하여 화약약품과 색소를 전혀 쓰지 않고 제작한다. 벌목 없이 자연스럽게 떨어진 나뭇잎으로 만들기에 서로 다른 무늬를 지닌 것이 특징이다. 게다가 사용 후 텃밭에서 60일 이내 생분해되어 비료가 된다. 가볍고 단단하며 내구성이 좋고, 환경호르몬이 나오지 않아 사람과 지구 모두에게 건강하고 즐거운 소풍을 선사할 수 있는 제품이다.

가을철 건강음료, 오미자미소
문경미소

○ 문경미소.kr
○ 054-572-4300

소풍에는 간식 못지않게 시원한 음료도 빠질 수 없다. 오미자미소 진액은 2년 이상 발효 및 숙성시킨 문경 오미자로 만들었다. 1인용 파우치 포장으로 휴대와 음용이 편리하다.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시원하게 마시면 더욱 맛있다. 더불어 오미자에는 체내에서 항산화 물질로 바뀌는 리그난이 풍부해 가을철 건강음료로도 적합하다.

2018 소셜벤처 경연대회 시상식 개최

2018 소셜벤처 경연대회 시상식이 9월 19일(수)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열렸다.
'소셜벤처 경연대회'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의 모델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는 행사로,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있다.
올해로 10회째에 이르는 행사로, 올해에는 '아이디어 분야(청소년 부문, 대학생 부문)'와 '창업연계 분야(일반창업 부문, 글로벌성장 부문)', 총 4개 부문으로 지난 5월부터 참가자를 모집했다. 대회 결과 총 41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총 상금 2억 원은 수상 내역에 따라 차등 지급됐다.
한편 시상에 앞서 2014년 수상자인 <모어댄> 최이현 대표, 2015년 수장자인 <업드림코리아>의 이지웅 대표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두 대표는 수상 팀들에게 '도전의식'과 '용기'를 강조했다.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 성황리 종료

7월 13일(금)~7월 15일(일) 대구 EXCO에서 열린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약 3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그동안 부처별, 지역별로 따로 개최해 오던 사회적경제 관련 행사를 통합한 것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당사자는 물론, 사회적경제 관련 정부부처 13개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이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345개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한 '기업관'에서는 교육·문화·예술, 먹거리(농식품), 환경·에너지, 복지 및 서비스, 제조업 특화상품 등이 전시 판매됐다.
정책홍보관과 대구광역시관으로 구성된 '특별관'에서는 사회적경제 제도 일반과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등이 상세히 소개됐다. 해외진출, 금융, 유통분야 관련 상담관이 운영돼 호평을 받았다.
부대행사로는 문화예술 공연, 청년 소셜벤처 토크 콘서트, 관람객이 세대별로 사회적경제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대구지역 문화예술사회적경제기업들의 합동으로 꾸민 '빅소셜데이' 공연은 사회적경제 당사자들의 창업과정을 스토리텔링해 전국에서 찾아온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진흥원, 제4대 김인선 원장 취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7월 9일(월) 제4대 원장으로 김인선 전(前)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대표가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인선 신임원장은 사회적기업 현장과 정책 전문성을 두루 갖춘 사회적경제 전문가로서, 사회적기업 (주)우리가 만드는 미래 대표이사와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를 거쳐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대표와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김인선 원장은 취임일성으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는 겸손한 지원기관, 여러 부처의 사회적경제사업을 연결하고 중개하여 지역 중심의 사회적경제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돕는 통합지원기관, 사회적가치를 높이고 협동과 연대를 실천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 권역별 사회적경제기업 추석판매전 개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한국철도공사는 9월 17일(월)~9월 26일(수)까지 전국 11개소 역사에서 권역별 사회적경제기업 추석판매전을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전국의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진흥원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만나볼 수 있도록 백화점 추석판매전 입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개최역사	운영기간	수행기관 (문의처)
용산역	9.21~9.26	(사)신나는조합(070-7601-1886)
영등포역	9.18~9.21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070-4763-0130)
부산역	9.21~9.23	(사)사회적기업연구원(051-517-0270)
울산역	9.21~9.23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070-8656-9292)
대전역	9.22~9.23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070-8767-2975)
광주송정역	9.20~9.22	사회적협동조합 살림(062-374-5365)
동대구역	9.17~9.23	(사)커뮤니티와경제(070-5133-0351)
김천(구미)역	9.20~9.23	사단법인 지역과소셜비즈(053-956-5002)
익산역	9.20~9.22	(사)전북사회경제포럼(063-251-8550)
목포역	9.20~9.22	(사)상생나무(061-282-9588)
강릉역	9.19~9.26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033-749-3991)

진흥원, 정책혁신 자문단 출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정책혁신 자문단'을 출범시키고 8월 31일(금)에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사회적경제조직, 시민단체, 학계, 현장 지원조직 등 다양한 분야·지역의 현장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됐으며, 회의에서는 자문위원단 운영방식, 혁신과제 선정 등 자문단 활동계획에 대하여 논의됐다.

회의 결과, 자문단 내 분과위원회 구성 및 상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진흥원의 역할, 신규사업 발굴, 현장 소통·협업강화 방안 등에 대해 앞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 및 공공성 확보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진흥원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김인선 원장은 "진흥원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역 중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며, 사회적가치를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자문단의 의견을 진흥원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공기관과 MOU 체결, 적극적 협력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발맞추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공공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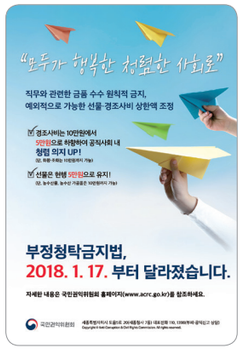
지난 8월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와의 MOU를 체결한 데 이어, 9월에는 공무원연금공단과의 MOU를 체결했다. 이러한 대형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9월 3일(월) 인사혁신처와의 MOU를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가들을 국가인재DB에 연계함으로서 다양한 정책 결정과 의사결정에 사회적경제기업가들의 참여를 넓혀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김인선 원장은 "진흥원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정책, 정부 기관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앞으로도 공공영역과의 협력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기관명	주요 내용
한국철도공사	역내 유휴공간 판매장 조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공무원연금공단	연금공단 제휴 복지몰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육성 지원
인사혁신처	우수 사회적경제기업가들의 국가인재 DB 연계

진흥원장 및 비상임이사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7월 27일(금) 제37회 이사회 개최 전 김인선 진흥원장과 비상임이사들이 청탁금지법의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을 실시하였다.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공직자의 의무이다. 금번 서약을 통해 청렴윤리에 대한 고위직의 솔선수범 의지가 전달되어 조직 내 청렴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18년 1월 17일부터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줄 수 있는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이 조정되었다. 선물 중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이고, 축의금·조의금 상한액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렸다. 단,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전처럼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주고받을 수 없다.

"모두를 위한 사회적기업! 너의 가치를 보여줘" 사회적기업 홍보 캠페인, 8개사 선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18년 사회적기업 홍보캠페인'에 참여할 사회적기업 8개사를 7월 5일(목) 최종 선정했다.

선정 기업은 '앨리롤하우스', '만인의꿈', '두리함께', '깜밥이날다 누룽지자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성동행복한돌봄', '함께나눔', '착한세상', '루미르' 등이다.

진흥원은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기업들의 우수 사례를 홍보하기 위해 6월 8일(금)부터 희망 기업을 모집했다. 모집 결과 사회통합, 지역경제 등 주요 사회적가치 13개 분야에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 69곳이 참여했으며,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나 홍보를 통한 사업 확장성 등이 필요한 기업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8개사에는 네티즌이 참여하는 모의펀딩을 통해 프로젝트 지원금이 수여됐다. 한편 진흥원은 현장 간담회를 열어 8개사와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구분	선정 기업	특징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깜밥이날다 누룽지자활협동조합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 도박중독자에게 일을 통한 자립 활동 지원
	사회적협동조합성동행복한돌봄 (서울 성동구)	전문교육을 통한 참여자의 서비스 표준화 추진
보건복지	㈜함께나눔(경기도 고양)	유품소각, 특수청소 유품정리업의 새로운 영역 구축
지역경제	㈜착한세상(부산)	부산지역 사회적경제기업 25개사에게 공동판매장 제공
사회통합	㈜엘리롤하우스(대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기회 및 일자리 제공
	㈜만인의꿈(서울 서대문구)	유휴 부동산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주거타운 조성
	㈜두리함께(제주도)	이동약자들에게 제주지역 개별여행 프로그램 제공
글로벌	㈜루미르(서울)	전력취약지역인 인도네시아에 폐식용유 열에너지만으로 작동하는 루미르 개발 및 보급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에 하고 싶은 말

<36.5> 지면을 채워 준 인터뷰이·소비자들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전하는 응원 및 당부의 메시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 곳곳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사회적경제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글 | 편집실

사회적기업가 양성에 힘을 실어주세요.

p4 Always with you

01 에코맘의 산골이유식 오천호 대표

처음 귀농해 이유식 사업을 시작할 때 아이템은 있었지만, 연구, 제조 · 가공, 유통 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때 진흥원의 컨설팅이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시스템에 대한 공부뿐 아니라, 마인드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었죠.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현실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탄탄한 자생력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과 다양한 가치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사회적기업가일 것이라고 자문하기도 하였고,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자존감에 대한 고민도 하였습니다. 에코맘의 산골이유식과 같은 사회적기업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가 양성에 지속적인 힘을 실어주기시를 바라겠습니다.

엑셀러레이팅을 넘어 인큐베이팅으로…!

p20 人Taboo

02 사회적기업 안테나 나태흠 공동대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사회적기업 진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취지도 좋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다소 과거의 방식을 따르는 감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선정한 다음, 그 사람 혹은 기업을 엑셀러레이팅하면서 키워나가는 방식이지요. 여기에서 좀 더 방향을 바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청년이나 사람들을 모아 함께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나가면 좋을지 워크숍을 여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사업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들을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만드는 프로세스가 있다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사례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으로 사회적경제를 더욱 탄탄히…

p24 Zoom in

03 성동구청 지속발전과 김규식 과장

그동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구심점이 되어, 많은 사회적기업들을 탄생시키고 성장시켜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성장이 지속되고, 사회적경제생태계가 더욱 풍성해져야 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계와 선을 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성동구청이 진행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사업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구에는 160여 개가 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 중입니다.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직접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다른 기관들이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유심깊게 살피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사회적기업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세요!

p34 K씨의 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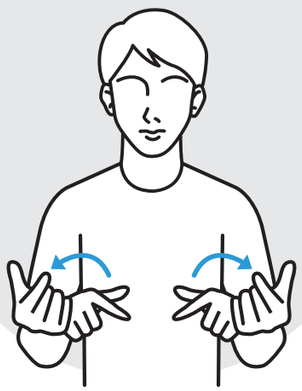
04 K씨

집 근처에 위치한 스토어36.5를 통해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어떤 곳인지 인지한 것은 불과 2년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스토어36.5에서 품질 좋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만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궁금증과 호감도가 높아진 셈이죠. 사회적기업이 이윤 추구뿐 아니라 우리 사회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돕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부분의 소비재는 사회적기업 제품을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남녀노소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❶ 오른 주먹을 쥐어 코에 엄지와 검지 옆면이 닿게 한다.
❷ 우뚝 솟은 높은 코를 연상하면서 동작하면 좋다.

아닙니다



❶ 양손의 주먹을 쥐고 엄지와 검지를 펴 손등을 하늘로 향하게 한다.
❷ ❶모양에서 두 손을 뒤집어 손등이 바닥으로 향하게 한다.

덕분입니다

❶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오른손은 펴 손가락을 모은다.
❷ 펴 모은 오른손으로 주먹 쥔 왼손을 두 번 두드린 후 두 바퀴 돌려 쓰다듬는다.

부끄럽습니다

❶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를 맞닿게 하고 나머지 손가락은 활짝 핀다.
❷ 동그라미 모양의 손가락을 오른쪽 볼에 두 번 댔다가 뗀다.

<출처 :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수어도 잘하는 당신은 멋쟁이

수어는 단순한 의사전달의 도구가 아니다. 표정과 손짓에서 그 사람의 미세한 감정과 생각이 오롯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어떤 언어보다 생생하고 솔직한 언어이다. 생생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수어를 익히시라! 글 | 기시윤

예의 없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01 공공장소에서 소음

가끔 지하철이나 도서관에서 핸드폰 소리를 키워놓고 동영상을 시청한다거나 쿵쿵거리며 걷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청각장애인일지도 모른다. 이는 핸드폰에서 소리가 나는지 모르고, 조용히 걷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02 무작정 큰 목소리

잘 안 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가 잘 안 들리니까 남들도 그렇다고 생각해 크게 말하는 경향이다. 간혹 목소리가 큰 사람을 만난다면 청각장애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지를 헤아려보자.

03 작은 터치에도 소스라치는 반응

01, 02와 같은 상황이라면 청각장애인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비청각장애인들에게 하듯이 툭툭치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시야 안에 먼저 들어와야 청각장애인들은 놀라지 않는다.

수화 콘텐츠 생산 사회적기업을 소개합니다

디지털장애인도서관 배리어프리
T 042-719-1004
S www.facebook.com/wingsbooks

열린책장은 위즈온협동조합과 협업해 '배리어프리(http://bb.or.kr/)'라는 디지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본 도서관은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음성도서와 (수어)영상도서, 자막도서가 있다. 배리어프리는 더욱 많은 시청각장애인들이 다양한 문화콘테츠를 자유롭게 즐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어진 디지털도서관이다.

독자
BOX

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더욱 알찬 <36.5>을 만드는 데 소중한 토대가 됩니다. <36.5>을 읽은 후의 느낌과 생각을 편집실로 보내주세요. '<36.5>를 읽고'라는 말머리와 함께 아래 문항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모두 답하셔도 좋고, 몇 가지 문항만 답하셔도 좋습니다. 그 밖에 하시고 싶은 말씀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보내실 곳 kosea@ikosea.or.kr

01 이번 호를 읽고 기억에 남는 내용이나 흥미로운 점을 말씀해주세요.

02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Always with you!에 소개하고 싶은 사회적기업이 있으신가요?

03 <K씨의 하루>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간략한 본인 소개와 함께 신청해주세요.

04 메일을 보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K씨의 하루에 등장했던 '마스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가를 위한 경영 역량 강화 교육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가가 기업을 운영하며 자주 겪는
회계, 세무, 노무, 법률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고자
'사회적기업가를 위한 기본 경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일 정 2018.11.5.(월), 7.(수)

장 소 소셜캠퍼스 온(경기) 5층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2 KT 모란빌딩(모란역 10번출구)
* 무료 주차 지원이 어려우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프로그램

일자	시간	프로그램	강의
11월 5일(월)	10시~18시	게임으로 쉽게 배우는 재무제표 이해	삼일회계법인 아카데미
11월 7일(수)	10시~13시	근로기준법 등 개정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인사노무 이슈	노무법인 의연 박윤섭 노무사
	14시~16시	사회적경제기업의 법률이슈 – 기업의 운영, 계약서 작성 및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이경호 변호사
	16시~18시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회계 · 세무 이슈	회계법인 나래 이대현 회계사

* 교육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인원 15명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대 상 소셜캠퍼스 온 입주 기업, 사회적경제조직 대표 및 종사자

신청기한 2018년 10월 31일(수)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지원 (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수 강 료 무료

특 전 모든 교육을 이수한 경우 진흥원장 명의 교육 이수증(15시간) 발급

문 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사업 담당자
(031-697-7826, edu@ikosea.or.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36.5

사회적기업 매거진
(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한화생명빌딩 6~8층
T. 031-697-7700 F. 031-697-7853 H. www.socialenterprise.or.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11
97 72465 870009
ISSN 2465-8707